

우리도 海中公園 指定을 서둘러야

“國土사랑” 自願奉仕團體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

吳 判 龍

이웃나라 日本은 1934년에 8개 국립공원을 指定한 이래 1987年 指定이 마무리돼 現在 28개의 국립공원과 경관식생 등이 국립공원급에 속하나 재정부담을 거의 자치단체가 맡고있는 國定公원이 54개소, 都道府縣立公원이 299개소나 된다. 그 위에 그들은 日本文化가 바다에서 이루어졌고 바다를 生命과도 같이 여기는 해양민족이어서 그런지 바다에 대한 애착심이 어릴적부터 두텁다.

아름다운 海中을 觀察하며 海中의 自然과 動植物을 保護하고 이에 수반된 國際情報 등 各種운동을 추진키 위해 1968년에 財團法人 海中公園센터를 設立하였다. 現在 국립공원內에 設定된 海中公園地區는 陸中海岸국립공원을 비롯 10개 국립공원內에 27개 地區, 13개 國定公園內에 30個地區 포함 23개 공원內에 57個地區의 海中公園이 指定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北海道에서 부터 「가고시마」에 이르기까지 48개 適地지역을 指定하여 國民休養村을 각급 자연공원內에 두어 실비로 건전하게 휴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공원內에 사치성 건설은 되도록 피하는 경향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수년전 부터 많은 “스쿠버다이버”들이나 이 方面에 관심 많은 청장년들이 日本의 海中公園의 맑은 바다를 찾고 요즘에는 멀리 사이판島까지 가서 훈련을 하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 沿海에도 수많은 適所가 있으나 아직 具體的인 統計는 갖지 못하고 있다. 濟州道 日出峰附近은 稀貴海洋動植物의 寶庫로 알려진지 오래되었고 紅島, 白島는 勿論 閑麗海上이나 多島海海上, 그리고 瑞山海岸, 邊山半島 앞과 鬱陵島近海를 調査한 바 있는 環境廳의 資料를 바탕으로 斯界權威陣이 모여 하루속히 우선 몇 군데만이라도 지정하여 稀貴資源의 保存과 動植物의 남획을 막고 아름다운 바다를 維持하도록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더욱 최근 각종 有害汚染物質을 沿海에 함부로 버리는 事件도 일어났으며 海底開發문제, 原子

力發電에 의한 海洋汚染의 危險度가 높아가고 大型油槽船沈沒事故의 빈발 등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의 保護策은 서둘수록 좋을 것이다.

日本에서의 海中公園센터活動을 보면 ▲海中自然 관찰연수회 ▲바다의 自然教室운영 各國民휴가촌에서 실시 ▲바다의 自然과 保護講演 ▲海中生態系에 관한 生物의 個體數 變動要因의 解明과 관리方法研究 ▲국립공원內 海中公園實施指針 ▲水域環境모니터링調査 ▲驅除事業調査 그밖에도 各地域別로 여러가지 보호사업과 保護條例指定을 施行도록 촉구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鹿兒島縣에서는 「붉은 바다거북」의 主要產卵地가 많아 이를 採取하는 사람이 있어 保護條例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 條例는 縣內全域의 海岸에 上陸하는 「바다거북」의 捕獲과 바다거북의 알의 採取를 原則적으로 禁止한다는 內容인데 禁止뿐만 아니라 同時에 保護巡察을 하면서 알 盜掘에 대한 團束과 觀察指導를 함과 동시에 上陸產卵狀況調査 등의 保護對策事業도 實施토록 되어 있다.

여기서 한가지 附言하고 싶은 것은 自然保護·環境保存 社會奉仕團體가 分野別로 더욱 많이 생겨나야 될 것이다. 或者是 새마을運動本部가 있고 自然保護中央協和 保存協會, 國立公園協會와 각종 鳥類保護團體, 그리고 野生動物保護團體도 있는데 모조리 한部處 傘下에 끌어넣어야 一絲不亂, 잘 된다고 말한다. 筆者所見은 다르다. 까지保護會도 나오고 寒蘭·風蘭保護會, 호랑나비保存會, 반딧불·잠자리保護會도 좋다. 海中公園이 指定되면 個體別·地域別保護會가 생길것이다. 자그마한 利害나 管轄慾을 버려야 한다. 참다운 自然保護운동을 국민속 깊이 뿌리박자면 自願奉仕團體가 계속 생겨 국민모두가 명예감시관이 되고 基金도 스스로 喜捨하는 市民이 많이 나와야만 할 것이다.

[筆者: 本會事務局長]